

전남~대만 하늘·바닷길 활짝...관광객 증가 기대

제주항공 무안공항~타이페이 주5회 정기 운항 지난 4·6월 이어 내년 크루즈 5차례 여수 입항

전남과 대만 간 하늘길과 바닷길이 잇따라 열리면서 전남을 찾는 대만 관광객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27일부터 무안공항과 타이페이를 잇는 정기편 운항을 주 5회 시작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4월 무안공항에서 오사카, 방콕, 다낭 정기편을 취항한데 이어 4번째로 국제노선인 무안~대만 간 정기편을 운항하게 됐다.

무안~대만 간 운항 첫날, 대만 관광객 130명이 전남으로 들어왔다. 전남도는 도립국악단 축하공연, 김·마스크팩 등 기념

품을 제공하는 등 환영 행사를 열었다. 정기편이 운항하면서 그동안 김해공항을 주로 이용한 대만 현지 여행사들이 전남 여행상품 판매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월과 6월에는 7000여 명의 대만 관광객을 실은 유람선이 여수를 방문해 오동도, 해상 케이볼카, 이순신광장 등을 둘러봤다. 내년에는 마제스틱 프린세스 호 등 타이완발 크루즈가 5차례 여수에 입항을 확정된 상태다. 타이완 선사와 여행사로부터 지속적인 입항 문의가 있어 크루즈 여행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크루즈여행은 그동안 부산과 제주에 집중됐지만, 최근 여수도 크루즈 입항이 늘면서 새로운 기항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불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만큼 앞으로 정기 항로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 현지 K여행사는 지난해부터 전남~부산 단독 여행상품을 출시해 전남에 2000명 이상의 관광객을 송출했으며, 인센티브 단체 900명을 추가로 송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송출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타이완에서 전남 여행상품 판매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과 관련한 유사 상품을 출시·판매하는 현지 여행사가 늘고

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대만 관광객 유입을 위해 광주시, 전북도와 함께 대만을 상대로 한 전라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기 TV 프로그램에 전남 여행 특집 편을 방영하도록 하고 현지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전라도 이미지를 광고하기로 했다.

오는 9월과 11월에는 현지 관광 박람회 등에서 전라도 특별관을 운영, 남도의 맛과 멋을 알린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정기 여객선, 크루즈 항로가 열리며 대만 관광객과 전남이 가까워졌다"며 "전남 관광 브랜드 개발과 홍보로 해외 관광객 다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원 기자 cki@kwangju.co.kr

시내버스 운전원 2560명에 광주시, 근무복 지급

광주시는 29일 "시내버스 운전원의 근무복을 제작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무복의 디자인과 옷감 등은 시내버스 노조에서 선택하도록 계획이다. 제작 업체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제작 업체가 선정되면 8~10월까지 3개월 동안 제작해 오는 11월부터 착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 시내버스 운전원은 현재 2560여명으로 소요 사업비는 3억5000여만원이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전원 근무여건 향상과 복지증진 차원에서 2014년부터 매년 동·하복을 제작·지급해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발과 같은 시내버스 운전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무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영차고지 환경개선, 가·중점 식당환경 개선 등 운전원 처우 향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라오스 돕자” 한국정부 구호품 도착 28일 오후 라오스 남부 참파삭 주 팍세 공항을 통해 한국 정부의 첫 구호품이 도착했다.

광주시, 시민 정신건강 직접 살핀다

우울증·불안증세 시민 동네 의원 연계 '마음이음사업' 시행

우울증이나 불안증세 등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동네의원과의 연계해 주는 '동네의원-마음이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내과, 산부인과 등 1차 의료기관 이용자 중 우울, 불안, 음주, 자살 등으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기에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광주시의사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광주전남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네의원에서 우울,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를 살피고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및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내 234개 1차 의료기관 중 가정의학과(15), 내과(27), 산부인과(6) 등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 이후 25명의 정신건강문제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많은 환자가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번 사업이 적기에 치료를 받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일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광주시가 정신건강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높

이고 향후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돼 국민의 건강한 삶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4명 중 1명(25%)은 전 생애에 걸쳐 한 번 이상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며, 2015년 보건복지부 자살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자살 등 정신과적 어려움은 있지만 이에 대한 지각없이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자살자의 2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독박물관 건립 지원 업무 협약



전남도·영암군·한국기원은 지난 27일 영암군 삼호읍 호텔현대에서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동평 영암군수, 김영록 전남지사, 송필호 한국기원 부총재. (전남도 제공)

전남에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탄력

도·영암군·한국기원 협약

바둑 본고장 전남지역에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영암군, 한국기원은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막식이 열린 영암 호텔현대에서 지난 27일 국립바둑박물관 건립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한국기원은 바둑 역사 연구·유물 조사 지원, 전남도는 박물관 국가정책 반영·지역 내 바둑 활성화 방안 마련, 영암군은 유물 확보·부지 제공·건립 관련 행정 지원을 각각 맡기로 했다.

국립 바둑박물관 건립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이 끝난 2016년 3월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에 포함하면서 시작된 전남도 역점사업이다.

바둑박물관은 부지 1만7000㎡에 건축 연면적 8000㎡ 규모로 바둑의 역사·문화·인물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공간, 바둑

배움·인지 과학·마인드 스포츠를 체험하는 공간을 갖춘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영암군과 함께 추진한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근거로 중앙부처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지만 유물 부재, 민중문화로서 대표성 부족 등이 이유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외 바둑대회 개최, 바둑 관련 학교와 바둑팀 육성 등 바둑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고 건의 활동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세계를 제패한 김인·조훈현·이세돌 등 3명의 국수를 배출한 전남은 자랑스러운 바둑의 메카"라며 "이들의 위업과 한국 바둑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세우기 위해 박물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95개 산단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8500명에 월 5만원씩 목포산정단지 정부지원 추가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8500명에게 월 5만원씩 교통비가 지원된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목포 산정농공단지가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전남지역 105개 산단 가운데 현재 조성 중인 10곳을 뺀 95개 산단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약 8500명이 청년동행카드 지원 혜택을 보게 됐다.

청년동행카드제는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15~34세)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남 88개 산단을 지원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후 대불산단, 광양산단, 목포 삼진산단 등 6곳이 추가됐으며 이번엔 1곳이 더 늘어 총 95개 산단이 지원 대상이 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사랑, 소망 그리고 인연

제22회 무안 연꽃축제

2018. 8.9(목) ~ 8.12(일) / 4일간
전남 무안군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

무안군

주요행사

- 이-클존(얼음나라)
- 연지방 소망등 달기
- 백련 가래떡 나눔잔치
- 연빛달빛 사랑의 퍼레이드
- 연꽃방죽 AR 보물찾기
- 발이공공 연꽃얼음물길